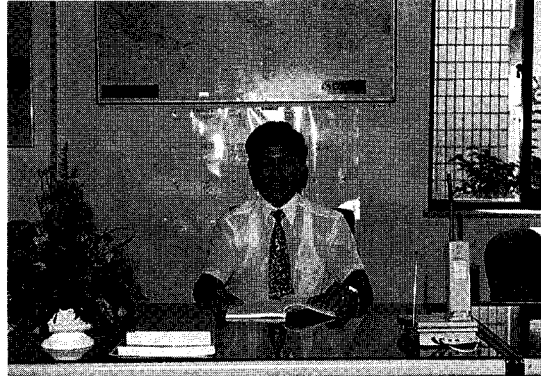


‘업계 공동이익 추구하고 국제화 견인 기대’

한국포장기계협회(가칭)
장충근 창립준비위원장



그 동안 포장기계 제조업체 단체의 필요성이 항상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지만 업계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로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오다가 최근 몇 차례 성과있는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한국포장기계협회(가칭)’의 발족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자윤기계 장충근(43) 대표가 준비위원장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당경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만류가 심했습니다. 우리 업계 풍토상 참는 게 낫다는 지적이었지요. 그때 이러한 문제 해결과 피해 업체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회 같은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팩 출품 당시, 외국 포장기계협회 관계자들이 우리의 협회 부재 이유를 물어왔을 때 대답이 궁했던 것도 제가 모임을 준비하게 된 동기입니다.”

장 사장은 지난해부터 협회를 만들기 위해 일단 그가 잘 알고 있는 업체들과의 모임을 준비해 나갔다. 뒤에 원로급의 친목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는 신진급과 원로급을 묶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 5월 실질적인 1차 모임이 있었고, 그뒤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 일정상으로는 협회의 창립총회를 10월 12일

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24개 업체로 일단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의 역량이 짧은 데다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홍보 부족 등으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우선 협회 발족이 이루어지면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 사장은 이제 국내 포장기계 제조업체들도 복제와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과 품질 경쟁으로 국제화를 지향해 나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 협회가 발족되면 그러한 부분에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 창립 초대회장으로는 동성포장기계의 정완용 회장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를 나와 여러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지난 81년 무역업체 설립으로 업계에 발을 들여 놓은 장 사장은 명함에 6,7개의 굵직한 직함이 박혀 있을 정도로 조직활동성이 뛰어나다.

자윤기계는 업계 최초로 교환부품 없이 카톤의 길이, 넓이와 폭 조정이 가능해 소량다품종에 적합한 ROTARY 타입 카톤포장기 개발로 성가를 높이고 있다.

장 사장은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고, 역사적인 존재자로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고.